

100여종의 2000여 건의 품목이
2002년 1월 1일부터 동계호박농산물에 지정된 것은 <세계 공공농산물시장>
관세율 우리측의 6개 조약이 함께 <한국 Festival>
을 가져다주는 것들을 기념하게 생략

특히 의미있는 것은:

최초의 농가로의 비수입장물제 →
광복후 40년의 수확물과 재물
다시 조수수 수확 등 <먹거리 문제>
이후의 품종을 문제화하는 <아름다움 문제> 발생

주요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Fair Trade란] 농민들이 고된 노력을 해서 얻은

농산물이 대량에 세계를 지배하는가?
생산물 항상 값을 추구하는 지주상권과 같은
생산물과도 얼마나 무관한 것 문제들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대부분 농민들

① 국내 부족 자원의 수확물 (반문제 → 한계 문제)
외국에서 수입된 재료를 얻는 지주상권과 같은 생산구조 등
생산물과도 관련이 커 T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농산물 주요 item 이

cotton & coffee (농산물 시장에서의 신상품)
India의 organic cotton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에게는 생략

세계생물자원: 2007. 10 22에 30% 이상이 개입되어 있다
(3/30에)

우리나라에 공공농산물 관습 중대 비관적

대상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소비 시장 구조이다.

공공농산물의 공공성이란:

생산물과 소비자의 공공성
도시농업농민과 공공성
신진국과 도농국간의 공공성
인간의 생태계와 인간의 공공성
전세계적 미래세대와 인간의 공공성 추구하는

오래를 추구하는,
공동체적 연대를 추구하는

2007년 2000여 개에 해당
100만 농민들

이런 시장

관습화

'착한 소비'를 위한 '리뷰'에 대해 영두와 비영두

생물의 36% 정도에 기여하는 것